



즉시 배포용: 2026년 2월 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근로자 재해보상위원회와 **SUNY, CUNY** 등이 협력하여 상해 근로자의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지원한다고 강조

*이에 앞서 Hochul 주지사의 **SUNY/CUNY Reconnect** 이니셔티브를 비롯해 상해 근로자가 더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

협력을 통해 주정부는 뉴욕 주민을 위해 함께 노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근로자 재해보상위원회(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와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 상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SUNY** 및 **CUNY Reconnect**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SUNY** 및 **CUNY Reconnect**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주는 학사 학위가 없는 **25~55세** 성인 학습자가 고수요 부문의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 및 각종 비용, 서적, 학용품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뉴욕주 근로자 재해보상위원회는 **5,000건** 이상의 메일을 보내고 새로운 웹사이트 wcb.ny.gov/reconnect 운영을 시작해 지원에 대해 알리는 등 최근 근로 중 상해를 입은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Y** 및 **CUNY Reconnect**는 삶을 바꾸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이 고수요 부문에서 학위를 취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새로운 학위 취득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저는 또한 지원 대상이 모든 뉴욕 주민이 학위를 취득하여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뉴욕의 발전에 기여할 기회에 대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주 근로자 재해보상위원회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뉴욕 시립 대학교(**CUNY**)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SUNY** 및 **CUNY Reconnect**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을 지원합니다. 상해 근로자가 새로운 기술을 익혀 근로 중 상해 및 질병을 입은 후 새로운 경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SUNY** 및 **CUNY Reconnect** 프로그램은 이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상해 근로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근로자 재해보상위원회의 구직 재활 상담사가

지원 대상 상해 근로자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무료 칼리지 교육 기회를 알리는 일을 지원합니다.

뉴욕주 근로자 재해보상위원회의 **Freida D. Foster**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원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SUNY 및 CUNY Reconnect 프로그램을 통한 무료 칼리지 교육은 이러한 상해 근로자들에게 희망 뿐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과 학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SUNY의 John B. King Jr.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 주민들은 훌륭한 교육을 적정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수요 부문에 학위를 취득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높일 수 있으며 뉴욕주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근로자 재해보상위원회와의 이번 파트너십은 Hochul 주지사가 가능한 많은 수단을 활용하여 뉴욕 주민과 뉴욕주 전체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SUNY 이사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활 노력의 일환으로 다시 일터로 복귀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재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SUNY Reconnect 프로그램을 홍보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Hochul 주지사를 비롯한 주 지도자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SUNY Reconnect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이 성인 학습자로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주 전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CUNY의 Félix V. Matos Rodríguez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뉴욕 주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 지위 향상과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한 강력한 길이 되어 주는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UNY Reconnect 프로그램을 통해 상해 근로자가 기술을 배우고 학위를 취득해 자신감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기회를 더욱 많은 뉴욕 주민으로 확대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Hochul 주지사의 [2025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SUNY 및 CUNY Reconnect를 통해 25~55살의 성인으로 첨단 제조,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엔지니어링, 기술, 간호 및 보험 의료 부문, 친환경 및 재생 에너지 등 특정 고수요 부문에서 준학사 학위 과정을 밟는 학생에게 등록금, 수수료, 서적, 학용품 등 비용을 제공하여 인력 부족을 겪는 산업 부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주지사는 [2026년 시정연설](#)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SUNY 및 CUNY Reconnect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 회계연도 예산의 일환으로, Hochul 주지사는 지원 대상 성인 학습자가 물류, 항공 관제 및 운송, 비상 관리 등 취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미 학위를 취득한 성인 학습자가 간호 교육을 위해 대학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1,25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 회계연도에 이번 장학금 프로그램을 위해 주지사가 투입한 초기 자금 4,700만 달러 투자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근로자 재해보상위원회의 직업 재활팀(Vocational Rehabilitation)은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력서 개발, 구직 지원, 업무 강도가 낮은 사무 또는 기타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찾는 기업과의 연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공식 자격을 취득한 임상 사회복지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상해 근로자들이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해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위원회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cb.ny.gov/content/main/Workers/lp_services.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2026년 시정연설에는 상해 근로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지사가 제안하는 법안은 상해 근로자 치료를 위해 특별히 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적용 대상으로 정상 운영하고 있는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상해 근로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합니다.

뉴욕 주립대학교 소개

뉴욕 주립대학교는 미국 최대 규모의 종합 고등교육 시스템으로, 전체 뉴욕 주민의 95% 이상이 SUNY의 64개 칼리지 및 대학교 중 3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SUNY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4개의 대학 보건 센터, 5개의 병원, 4개의 의과 대학, 2개의 치과 학교, 1개의 로스쿨,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해양 학교, 주의 유일한 검안 대학, 12개의 교육기회센터, 30개 이상의 ATTAIN 디지털 리터러시 랩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에너지부 국립 연구소(U.S. Department of Energy National Laboratory) 1곳을 관리합니다. 전체적으로, SUNY는 학점 및 비학점 과정과 프로그램, 평생 교육,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약 170만 명의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는 뉴욕 학술 연구의 약 사분의 일을 감독합니다. 2025년 회계연도에 전체 시스템의 연구 비용이 약 15만 달러였으며, 이는 학생과 교수진의 상당한 기여를 포함합니다. 전 세계에 3백만 명 이상의 뉴욕 주립 대학교 동문이 있으며 대학 학위를 가진 뉴욕 주민 3명 중 1명은 뉴욕 주립 대학교 동문입니다. SUNY가 기회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suny.edu를 방문하십시오.

뉴욕 시립 대학교 소개

[뉴욕 시립 대학교](#)는 미국 최대의 도시 공립 대학으로, 뉴욕시의 생명력에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이동성의 혁신적 동력입니다. 미국 최초의 무료 고등교육 기관으로 1847년 설립된 뉴욕 시립 대학교는 현재 뉴욕시 5개 자치구에 걸쳐 커뮤니티 칼리지 7곳, 시니어 칼리지 11곳과 대학원 또는 전문 교육기관 8곳이 있으며, 이러한 교육 기관들은 247,000명의 학부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교육하고 매년 50,000개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CUNY 교육의 질과 경제성이 결합되어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을 모두 합친 것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산층과 그 이상으로 이끕니다. 대학 졸업생의 80% 이상이 뉴욕에 머물며 도시의 경제, 시민 및 문화생활의 모든 측면에 기여하고 모든 부문에서 도시의 인력을 다양화합니다. CUNY의 졸업생과 교수진은 노벨상 13개와 MacArthur "천재" 지원금 26회를 포함하여 많은 권위 있는 명예를 받았습니다. 시립

대학교의 역사적인 사명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재력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최고 수준의 공립 교육을 제공합니다. CUNY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cuny.ed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근로자 재해보상위원회 소개

근로자 재해보상은 근로와 관련된 부상 또는 질환으로 임금 및/또는 의료 지원을 잃게 된 경우, 이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뉴욕주에서 근무하는 지원 대상 근로자 모두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나 비자 등에 관계 없습니다. 근로자 재해보상 위원회는 뉴욕주의 재해 보상과 장애 수당, 유급 가족휴가 등의 집행을 감독합니다. 적절한 복리후생 제공을 보장하고 법률 준수를 고취함으로써 고용인과 고용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wcb.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